

을사조약 전후 상동청년회의 민족운동과 정순만

한 규 무*

-
- I. 머리말
 - II. 정순만의 상동청년회 입회시기
 - III. 멕시코교포 신태조사단 파견과 정순만
 - IV. 을사조약 반대투쟁과 정순만
 - V. 을사오적 암살기도와 정순만
 - VI. 맺음말
-

I. 머리말

이 논문은 정순만의 민족운동 중 상동청년회에서의 활동에 주목한 것이다. 그의 국내외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신세라·박결순 등의 논문에서 상당 부분이 밝혀졌으며,¹⁾ 국내 민족운동의 경우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다.²⁾

* 광주대학교 교수

- 1) 신세라, 「정순만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5(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박결순, 「연해주 한인사회의 갈등과 정순만의 피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한규무, 「정순만론」, 『한국기독교사연구』 22(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8).

그럼에도 정순만과 상동청년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의 여지가 크다. 여기서는 그의 상동청년회 입회시기, 상동청년회가 추진한 멕시코교포 신태조사단 파견과 을사조약 반대투쟁 및 을사오적 암살시도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제측은 1890-190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계보가 '독립협회-상동청년회-신민회'로 이어진다고 파악했다.³⁾ 특히 을사조약(1905.11.17)을 전후한 시기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을 벌인 단체가 상동청년회였으며, 그 회장인 전덕기⁴⁾와 함께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정순만이었다. 즉 정순만은 전덕기와 함께 1905년 전후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을 이끈 '쌍두마차'였다. 부디 이 논문을 통해 정순만의 민족운동이 더욱 선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정순만의 상동청년회 입회 시기

상동청년회는 1897년 9월 5일 상동감리교회⁵⁾에 조직된 엽윗청년회 [Epworth League, 懿法青年會]이며, '청년회'란 명칭이 붙은 단체로는 한국 최초라 알려져 있다. 회원자격은 15-35세의 교인이며, 창립 당시 회원은 44명이었다.⁶⁾ 이후 엽윗청년회는 정동감리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감리교회에서도 조직되었으며, 교회의 청년단체인 만큼 그 활동도

2)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1897-1914」, 『역사학보』 126(역사학회, 1990) 참조.

3) 「朝鮮獨立運動의根源」, 『齋藤實文書(9)』(고려서립 영인본, 1990) 참조.

4) 전덕기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이덕주, 「전덕기 목사의 생애 재구성」(『윤춘병감독팔순·성역40주년기념논총: 한국감리교회와 역사』, 논총간행위원회, 1998) 참조.

5) 상동교회·상동청년회·상동청년학원 등은 종종 혼용되기도 한다. 1888년 설립된 상동교회 안에 조직된 청년단체가 상동청년회(1897)이고, 상동청년회에서 개설한 교육기관이 상동청년학원(1904년)이다.

6)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년 9월 8일 「청년회」.

기도회·토론회·전도회 등 종교적 영역을 넘지 않았다.⁷⁾

그런데 상동청년회는 1900년 무렵 해산 상태였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899년 1월 전덕기·정순만·박용만·이승만 등이 당시 설립되어 있던 ‘청년회’ 명의로 황위를 황태자에게 넘겨야 한다는 격문을 만들어 뿌렸다는 기록이 참고된다.⁸⁾ 이 ‘청년회’가 곧 상동청년회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감리교측에서 엠틀청년회와 ‘청년애국회’를 혼동하지 말라는 기사를 실은 것으로 미뤄⁹⁾ ‘청년애국회’가 아니었나 여겨지기도 한다. ‘박영호 쿠데타사건’·‘유신당사건’ 등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이승만이 투옥되며, 정순만·박용만도 이어 수감되었다.¹⁰⁾

이에 따른다면 전덕기와 이른바 ‘3만’이 이미 1899년에 교분을 맺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스럽지만, 『獨立協會略誌』에 이들이 모두 독립협회 회원으로 나오기 때문이다.¹¹⁾

그렇다고 해서 이 무렵 이미 정순만이 상동청년회 회원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상동교회 교인이어야 하는데, 1900년 교인명부에는 그를 비롯해서 이승만·박용만이 나오지 않는다.¹²⁾ 또 아직은 전덕기가 상동청년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지도 못했다. 전덕기가 상동청년회 회장이 된 것은 1903년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7) 조이제, 『한국감리교청년회 100년사』(감리교청년회 100주년기념사업회, 1997), 58-61, 70-73쪽. 토론회의 주제도 대부분 종교적인 것이었다.

8) 서정주, 『이승만박사전』(삼팔사, 1949), 178-179쪽.

9)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년 7월 12일 「청년회와 청년 국회를 분간 일」.

10) 신세라, 「정순만의 생애와 민족운동」, 234-235쪽.

11) 이 자료는 『창작과비평』 1907년 봄호에 실려 있으며, 1926년에 작성되었으나 오류도 자주 보인다. 이밖에 정순만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朝鮮獨立運動의根源』이 있다. 한편 『독립신문』 1897년 4월 27일 「독립협회 보조금 수입헌 인원의 성명표」에는 <친위 데일연 데이대 보조금> 명단(‘병졸’)에 “정순만”이 나오는데, 동명이인인 것 같다.

12) 송길섭, 『상동교회 90년사』(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1980) 부록 참조.

A. 1903년에 상동교회 안에 엮뵈청년회를 설립하니 회원이 수백명에 니른지라 선생(주: 전덕기)이 그 회에 회장으로 피임되야 매주일 목요일 오후 일곱시에 통상회를 열고 사무처리를 하더니 ...13)

여기서 보듯이 전덕기가 회장을 맡으면서 상동청년회는 발전하기 시작했다.14) 이상을 종합하면 정순만은 1899년에 투옥되고, 1900년 상동교회 교인명부에 그가 보이지 않고 상동청년회도 해산 상태였으며, 1903년 전덕기를 중심으로 상동청년회가 재건되므로, 그의 입회도 1903년 이후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입회시기가 바로 1903년이었다고 단언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B. 정순만씨 원 통청도 청주사람이고 산림 단간 의 데자로 ① 아일전 시에 우리나라 만고통신 리준씨와 리현석 씨 등으로 더부러 적십자회사를 맡기야 일본이 우리 대한에 하야 독립과 강토를 공고한다 세계에 성명헌 귀절을 방비코져 다가 필경 그듯이 현발되야 여러날을 옥에 갓챳다가 장 팔십에 선고 류혈이 랑 혼 경위에 니르러스니 만일 그 에 일본사 을 도와주려 여슬 지경이면 물과 벼살로 상급을 얼마큼 얻어슬지라 엇지 이와 치 류혈이 랑자토록 를 마졌스리오 오 이 일로 정씨를 모함코져 함은 마 속에 요량은 업 일이 며 ② 그후에 일인 장삼이 우리나라 산림천 을 청구 에 보안회를 니리켜 극렬반 다가 필경 일병이 총으로 보안회를 산식힐 에 정씨가 덩신 호왈 정순만이 차하니 혼치만헌 이라도 가져가지 못 리라 고 옷을 고 일병의 총을 밧고져 혼즉 일병도 그 총량을 사랑 야 감히 하수치 못 앳고 ③ 그후에 남대문안 상동예수교청년회 부회장이 되야 사회와 교육에 열심할 만 아니라 일본사 덩관일이란 놈이 우리동포 일천삼 여명을 목서가에 팔아먹어실 에 정부에당셔도 앳고 질문도 앳스며 ④ 오조약할 에 전국 에 지사를 단 하야 혹 상소도 고 혹 종로에서 일병과 사 을 결혼 일이 비일비 오15)

13) 노블부인, 『승리의 생활』(기독교창문사, 1927), 151쪽.
14) 그 회원수에 대해서는 ‘친여명’(『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12일 「技徒可憎」)·‘수천’(김진호, 『牧師全德基略史』)·‘4만’(『朝鮮獨立運動의根源』) 등으로 나오나 모두 과장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충청도 청주 출신으로 良齋 田愚의 문하에서 수학한 정순만은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이준·이현석 등과 함께 적십자회를 발기했으며(①), 같은해 보안회를 조직하여 황무지개척권 요구에 반대했고(②), 이후 상동청년회 ‘부회장’¹⁶⁾이 되어 1905년 멕시코교포 실태조사를 위해 노력했으며(③), 같은해 을사조약 반대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이다(④).

하지만 여기서도 그의 상동청년회 입회시기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가 1904-1905년 청년회 임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입회는 그 이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의 동료 박용만이 이미 1903년 9월 상동청년회 ‘다정국장’이었던 것으로 미뤄, 정순만 역시 1903년 무렵 청년회에 입회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정순만은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이준·이현석¹⁷⁾ 등과 함께 적십자사를 설립하여 일본군을 후원하자고 주장하다 1904년 3월 체포되어 6월에 출옥했다.¹⁸⁾ 수감기간 중 그가 『신약전서』를 3개월간 대출한 것으로 미뤄, 어쩌면 그의 기독교 입교 및 청년회 입회가 출감 직후일 수도 있다. 같은해 그는 다시 박용만 등과 함께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해 반대하는 보안회 활동을 벌이다 일시 투옥되었고, 이때 수감 중인 이승만과 함께 ‘형제의 의’를 맺었다고 한다.¹⁹⁾

아무튼 늦어도 1904년 그는 상동청년회 회원이었다. 1904년 10월 개원한 상동청년학원의 ‘捐助者’ 명단에 그를 비롯한 ‘3만’이 모두 나오기

15) 『大同公報』 1909년 5월 5일 「鄭淳萬씨의 歷史」. 번호는 필자가 붙였다.

16) 상동청년회를 비롯한 엽월청년회에는 ‘부회장’이란 직책이 없었으며, 그가 상동청년회에서 맡은 직책은 ‘서기’만이 확인된다.

17) 이준은 연동장로교회 교인이며 국민교육회 회원이었으나(최기영, 「국민교육회의 설립과 기독교」,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일조각, 1997, 206-207쪽) 상동청년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현석도 상동청년학원에 계속 후원금을 낸 것으로 미뤄 그 회원으로 짐작된다(이승만, 「상동청년회의 학교를 설치」, 451쪽; 『황성신문』 1905년 2월 13일 「漢城尙洞靑年學院捐助金廣告」).

18) 『황성신문』 1904년 4월 26일 「照律不服」; 정순만, 「(寄書)媾和를 傍聽하고 獨立을 鞏固케 」, 『황성신문』 1905년 9월 5일.

19) 신세라, 「정순만의 생애와 민족운동」, 235-239쪽.

때문이다. 이승만이 초대원장을 맡았으므로, 그 역시 도미하기 전 잠시
 나마 상동청년회 회원이었다.²⁰⁾ 상동청년회의 역대 임원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상동청년회 임원진(1898-1905)

직책	1898.9	1903.9	1904.9	1904.11	1905.8	1905.9
임원국장 (회장)	이승승	전덕기		전덕기	전덕기	
전도국장		박승규				
인제국장		최재학				
학문국장		이은덕				
다정국장		박용만				
통신국장 (서기)		공홍렬	박용만		정순만 (서기)	정순만 (서기)
회계국장		임상재				
전거	『대한크리스 도인회보』 1898.4.13	『신학월보』 1903.9	『신학월보』 1904.9	『신학월보』 1904.11	『황성신문』 1905.8.7-10	『황성신문』 1905.9.5

이처럼 박용만은 이미 1903년 9월, 정순만은 1905년 8~9월 현재 임
 원으로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서기’의 직책을 맡았는데, 그
 임무는 회원명단 및 회의록 작성과 “신문사에 보 여 세상에 광포
 일이면 신문사에 보”하는 것이었다.²¹⁾ 1905년 멕시코교포 실태조사단
 파견 때 정순만이 상동청년회를 대표하여 자신의 명의로 신문에 수차
 기고한 것도 이같은 직책 때문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대동공보』의 「정순만씨의 역사」에서는 정
 순만의 직책이 상동청년회의 ‘부회장’이라 나오며, 일제측 기록에 그같
 이 나오기도 한다.²²⁾ 이는 단순한 착오일 수도 있지만, 정순만이 회장

20) 이승만, 「상동청년회의 학교를 설치」, 『신학월보』 1904년 11월, 451-452쪽.
 21) 노병선, 「청년회 통신국을 진보케」,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
 년 10월 19일; 조이제, 『한국 감리교청년회 100년사』, 57쪽.

전덕기 다음으로 상동청년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1905년 상동청년회의 활동에서 그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Ⅲ. 멕시코교포 실태조사단 파견과 정순만

1905년 4월 인천을 출발한 천여 명의 한국인들은 5월 멕시코 유카탄(Ucatan)주 메리다(Meride)에 도착하여 현지농장에 취업했다. 그 후 이들은 처음 계약조건과는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았으며, 현지에서 있던 중국인 河惠는 한국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적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방화중·신태규·안정수·황용성 등에게 보냈고, 편지를 본 이들은 이를 다시 상동청년회에 보냈다.²³⁾ 이에 상동청년회에서는 『황성신문』(1905.7.29)에 「墨西哥移住民의 慘狀」이란 河惠의 편지와 「國民이 盡爲 奴隸어 誰能救乎아」란 정순만의 기고가 실렸다.²⁴⁾ 이어 『황성신문』(1905.8.7)에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이 '尙洞 耶穌敎青年會 會長 全德基 書記 鄭淳萬'의 명의로 실렸다.

정순만은 이전부터 한국인들의 멕시코 이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는 멕시코로 출발하는 친구를 만난 후 그 소감을 적어 『체국신문』(1905.4.1)에 「관인만 원망말고 백성이 일심할 일」을 기고하여 주의를 촉구했다.²⁵⁾ 그리고 그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그는 상동청년회의 서기로서 진상파악에 나섰다.

22) 「萬國耶穌青年會」, 『顧問警察小誌』(韓國內務警務局, 1910). 96-97쪽

23) 이들이 이 편지를 상동청년회에 보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안정수가 인천 내리교회 엠윗청년회 출신이어서 상동청년회 전덕기와 잘 알고 있었던 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4) 이어 『황성신문』(1905.7.31)에는 이에 대한 논설 「墨西哥移民의 情況을 慘不忍聞」이 실렸다.

25) 신세라, 「정순만의 생애와 민족운동」, 239-240쪽.

상동청년회에서는 연설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의연금 수백원을 모금하는 한편 박장현과 이범수를 멕시코 현지에 보내 진상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들은 8월 24일 멕시코로 출발했으나 이범수는 상해에서 발병하여 도중에 귀국했고, 박장현은 미국에서 자금이 모자라 곤란을 겪었다. 그러자 상동청년회에서 다시 모금하여 송금했다.²⁶⁾

박장현은 11월 워싱턴에서 상동청년회에 보고서를 보낸 후 한국에서 송금된 여비를 받고 멕시코로 출발, 1906년 1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메리다의 정황을 탐문하던 그는 현지에서 탈출한 안규선·유우규 등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 내용을 상동청년회에 보냈으며, 상동청년회에서는 이를 신문에 실었다.²⁷⁾

이같은 박장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메리다의 한국인들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부에서는 을사조약 등의 사정이 겹쳐서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의 파견목적이 ‘현지조사’였음을 감안한다면, 그 실태를 널리 알림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고 하겠다.²⁸⁾ 즉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이민하려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동청년회 서기’ 정순만의 활약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IV. 을사조약 반대투쟁과 정순만

멕시코교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1905년 8월, 『황성신문』(1905.8.10)에는 ‘靑年會 書記 鄭淳萬’의 기고 「李漢應行狀과 追悼會實情」이 실렸다. 이는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자결한 주영대리공사 이한응의 순

26)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88-90쪽; 신세라, 「정순만의 생애와 민족운동」, 239-241쪽.

27)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19-22일 「移民慘狀」.

28)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90쪽

국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⁹⁾ 이어 9월에도 그는 ‘尙洞青年會 書記’ 명의로 『황성신문』(1905.9.5)에 「媾和를 傍聽하고 獨立을 鞏固케 」을 기고했다. 여기서 그는 1905년 7월 포츠머스강화회의에 한국대표로 파견된 윤병구를 후원하기 위해 상동청년회에서 350원을 모금하여 송금했음을 알리면서 한국인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처럼 상동청년회가 계속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자 일제측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다음은 그같은 기록들인데, 여기서는 정순만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C. [교회가입의 상황(1905.10.19)] 경성의 미국청년회는 萬國青年會 및 美以米會의 2파가 있는데, 만국청년회는 長老會라 불리며 그 회장은 모리, 기타 게일·질레트·벵커 등이 포교하며, 미이미교회는 懿法會라 부르며 캐리 박사, 지방회장은 스크랜턴, 기타 언더우드 등으로, 회당은 相洞(尙洞)·培材學堂 및 蓮洞 의 3곳이 있다./ 韓人敎員 전덕기·정순만·정응설·서상팔 등은 愚民을 선동하여 오로지 정치상의 운동에 이용했는데, 게일과 기타 교사들은 이를 크게 우려해 누차 스크랜턴에게 주의를 주고 또 스크랜턴도 我會는 정치상에 관계할 법한 성질이 아니며, 여기에 어긋나면 斷然히 退會시키겠다고 연설했으나 거의 효력은 없었다고 한다./ … 지금 스크랜턴과 기타 교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로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同會는 해산이라는 悲境에 이르게 될 것이다.³⁰⁾

D. [한국청년회의 상황 및 상업계 공황 건(1905.11.13)] 청년회의 상황/1. 스크랜턴의 主管에 속하는 감리교 청년회 회원 전덕기·정응설·서상팔 외 1명이 主任이 되어 누차 政法과 관련된 연설을 하여 萬國青年會 主管 게일 등의 주의를 받은 결과 스크랜턴은 위의 회원들에 대해 斷然히 집회를 정지시켰다. 그러자 앞의 4명의 회원이 발기하여 따로 청년회를 조직하고 이봉래의 주선으로 協律社를 사무소로 빌려 근일 집회를 연다고 한다.³¹⁾

29) 鄭喬, 『大韓季年史(下)』(국사편찬위원회, 1971), 159쪽에는 “鄭喬·呂炳鉉·鄭淳萬等 設追悼會而哀之 會者數百人”이라 나온다.

30) 「教會加入ノ狀況(願警第6號)」, 발송일 1905.10.19, 발송자 丸山 敬務顧問, 수신자 萩原 代理公使, 『駐韓日本公使館記錄(24)』(국사편찬위원회, 1998).

31) 「韓國青年會의 狀況 및 商業界恐慌 件(願警第67號)」, 발송일 1905.11.13,

E. [조선독립운동의 근원(1919-1920)] 명치 37년(1904) 가을, 즉 일러전쟁 중 예수교 전도의 이름 아래 상동청년회라는 것이 출현했다. 이회는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의 주선으로 출옥한 이승만을 원장으로 해서 상동청년학원이라는 것을 경영하여 오로지 뜻있는 청년에게 신학문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실은 일러전쟁의 대세가 친러파의 세력감퇴라는 경향을 드러내자 전의 독립협회가 예수교의 가면을 쓰고 대두한 것이었다. 청년회의 간부는 이동령·이승만·정순만·이회간·박용만·조성환 외에 예수교 목사 전덕기를 회장으로 하고, 현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이동휘 등도 가세하고, 민영환·이시영·이상설 등 대관의 후원도 있어, 그 회원은 4만이라고 하며 그 주의·주장은 물론 조선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배척하지만 러시아를 대신해서 심각하게 침입하는 일본제국의 대한정책에 반대하는 데 있다. … 러일전쟁이 종결되고 포츠머스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帝國의 우월권을 인정받은 명치 38년(1905) 11월 일한조약이 장차 체결되려 하자 … 당시 외부대신 박제순이 外硬內軟의 태도를 보이자 정순만·이회간 두 명은 비수를 품고 박외상의 집을 방문하여 조약에 조인하지 말 것을 결심하도록 촉구하고, 일본 공사가 조인을 강요할 경우에는 官印을 연못에 던져버리고 자살하라고 협박했으며, 민간에서도 반대하는 열기를 일으켰다. … 명치 40년(1907) 헤아밀사사건이라는 큰 음모가 기도되었는데, 이것은 보호정치를 반대하는 국서를 갖고 헤아의 만국평화회의에서 호소하여 帝國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으로, 음모의 수령은 박영효이고 이동령·이시영·이회간·전덕기·정순만·이상설 등이 그 獻策者이며, 이준(상동청년회의 외교부장이었던 인물)·이상설 2명을 사절로 파견하는 일에 內議一決했으며, 여비와 황제의 국서를 전하는 일이 곤란해지자 한규설에게 자문했지만 패락하지 않자 이회간·정순만이 협박한 결과 한규설은 궁내부 비서함 조남걸(황제의 母의 妹의 子)에게 소개하고, 다시 김명준(현 국민협회장)의 주선으로 내관 강석호와 접촉하여 국서와 여비를 얻었다.³²⁾

F. [만국야소청년회(1910)] 청년회는 종교를 표방하는 일종의 단체로서 상동청년회와 황성기독교청년회의 2파로 나뉜다. 상동청년회는 10여 년 전 감리교 선교사 미국인 스크랜턴이 창설에 관계할 당시 독립협회의 잔여세력인 모든 단체는 朝野의 嫌忌를 받아 청년회의 세력 역시 미진하여 소수의 회원이 회당에 모여 포

발송자 警務顧問 警視 丸山重俊, 수신자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駐韓日本公使館記錄(24)』.

32) 『朝鮮獨立運動의 根源』.

교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명치 37년(1904) 교육 및 종교에 관한 각종의 결사집회가 발흥함에 이르러 청년회 역시 점점 세력을 회복하게 되어, 회장에 전덕기, 부회장에 정순만, 기타 정응설·서상팔 등이 협력하여 회원을 널리 전국에서 모집하여 큰 확장을 꾀했다. 마침 군용지매수문제가 일어나자 한강연안의 인민은 수용을 면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관하는 동회의 회원이 되고, 또 시국의 추이에 따라 일한관계가 확정되어가자 조야에서 배일주의에 열중하여 차라리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다.³³⁾

이에 따르면 상동청년회 전덕기·정순만 등이 '정치상의 운동'에 나서자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회장 게일(J. S. Gale)과 다른 선교사들이 스크랜턴(W. B. Scranton)에게 주의를 줬고, 이에 그는 '我會', 즉 상동청년회에서 그같은 사례가 재발하면 그들을 "斷然히 退會"시키겠다고 대답했지만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제측은 상동청년회의 해산밖에 방법이 없다고 예상했다(C). 그 후에도 전덕기·정순만 등이 "누차 政法과 관련된 연설을" 하자 게일 등의 주위에 따라 스크랜턴은 상동청년회의 집회를 금지시켰다는 것이다(D). 스크랜턴이 상동청년회를 비롯한 엠윗청년회의 집회를 금지시킨 것은 그 자신의 서한에서도 확인된다.³⁴⁾ 또 정순만은 1904년 이후 상동청년회의 을사조약 반대운동 및 헤이그특사 파견에 관여했으며(E), 전덕기가 회장 정순만이 부회장을 맡았다는 것이다(F). 이같은 내용 중에는 일부 오류도 있으나, 1904년 이후 전덕기와 정순만이 상동청년회의 핵심인물이었음

33) 「萬國耶蘇青年會」.

34) "오늘 나는 전례없는 결정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 엠윗청년회는 내가 공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각처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일반적인 불안요소 때문에 엠윗청년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입회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정의감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청년회 이름으로 활동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기도하여 그 목적이 모호해져서 우리가 보기에 일본정부든 한국정부든 이 모임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W. B. Scranton's letter to Dr. Leonard[1905.11.1]」: 이덕주, 「전덕기 목사의 생애 재구성」, 151-152쪽에서 재인용)."

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일본의 주권침탈 직전인 1905년 11월 10일, 상동교회에서는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당시 신문에 따르면 “尙洞靑年會에서 會員 千餘名이 國家禍機然眉 을 憤慨 야 至於相扶痛哭”했다고 한다.³⁵⁾ 위의 기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상동청년회 회원이라 나오지만, 이미 집회가 금지된 상동청년회가 기도회를 주관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 회원들만 참석했을 리도 없다. 이 기도회는 상동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스크랜턴은 이 집회를 사전에 금지시키지 못했을까. 아마 그로서도 ‘구국기도회’를 금지시킬 명분은 없었을 것이다. 이미 그 해 연동교회(장로교)에서는 ‘위국기도문(爲國祈禱文)’ 1만장을 인쇄·배포하고 매일 오후 3-4시 국가를 위해 기도하도록 교인들에게 당부한 적이 있다.³⁶⁾ “여기 분위기는 소요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의 오늘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³⁷⁾라며 한국에 동정적이었던 그가, 기도회라는 종교집회마저 불허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다.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 17일 이후에도 매일 오후 7-9시 전덕기·정순만을 중심으로 기도회는 계속 열렸다.³⁸⁾

35)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12일 「技徒可憎」.

3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지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沈淪[깊은 물]에 드렀스 오직 하나님맞게 빌 업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 오니 한국을 불쌍히 녀이사 耶利未亞[예레미야]와 以賽亞[이사야]와 但以理[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위 야 간구 을 드르심갓치 한국을 구원 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 고 다 천국백성이 되어 나라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에 독립국이 확실케 야쥬심을 예수님의 일흠으로 비 나이다.” 이 기도문은 『황성신문』(1905.7.25)에는 한문, 『대한매일신보』(1905.11.19)에는 국한문으로 실려 있다.

37) W. B. Scranton, 「Superintendent」, *Official Minutes of the Annual Session of the Korea Mission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5, p.28.

38) “本國耶蘇新敎人全德基·鄭淳萬等 自新條約調印之後 每日會于尙政丞洞在崇禮門內敎會堂 自下午七時至九時爲國家祈禱于上天 男女敎人至者數千人(정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지사'들을 상동교회로 불러 적극적인 을사조약 반대투쟁을 계획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김구의 회고이다.

G. 나는 진남포 에버트청년회(憲法青年會) 총무의 직임을 이어받아, 그 회 대표로 뽑혀 경성에 파견되어, 경성 상동교회에 가서 에버트청년회 대표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때 각 도에서 청년회 대표가 모여 토의하는 것은 겉으로는 교회 사업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순전히 애국운동이었다.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산림학자들을 구(舊)사상이라 하면, 예수교인들은 신(新)사상이라 하겠다./ 그때 상동에 모인 인물로 말하면, 전덕기·정순만·이준·이석(이동령)·최재학·계명륙·김인집·옥관빈·이승길·차병수·신상민·김태연·표영각·조성환·서상팔·이항직·이회간·기산도·전병현·유두환·김기홍·김구 등이었다. 회의 결과 상소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이준이 상소(疏文)를 지었다. 제1회 소수(疏首)는 최재학이고, 그밖에 네 사람을 더하여 다섯 사람이 신민(臣民)의 대표 명의로 서명하였다. 다섯 사람만 상소한 것은, 상소하면 반드시 사형될 것이요, 사형되면 다시 다섯 사람씩 몇 차례든지 계속할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정순만의 인도로 교회당에서 맹세의 기도를 하고, 모두 대한문(大漢文) 앞으로 나갔다.³⁹⁾

그런데 이 회의에는 장로교인도 다수 참석했고, 정동교회·내리교회 등 주요 감리교회의 앵뮈청년회 대표들이 불참했다.⁴⁰⁾ '앵뮈청년회 대표회의'가 아니었던 셈이며, 이들 외의 참석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참석자들은 최재학 등 대표 5명을 뽑아 11월 27일 정순만의 인도로 기도한 뒤 대한문 앞에서 복합상소를 했으며, 30일에는 종로에서 「警告我二千萬同胞之文」이란 격문을 뿌리며 가두연설을 하다 일경과 충돌했다.⁴¹⁾ 상동청년회가 을사조약 반대투쟁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처럼 전덕기·정순만이 주도한 상동청년회의 을사조약 반대투쟁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어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⁴²⁾

교, 『대한계년사(하)』, 191쪽.”

39)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돌베개, 2002), 193-195쪽.

40)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95-96쪽.

41)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194-195쪽.

42)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29·30일 「諸氏發起對所謂新條約卞明書」; 『대

V. 을사조약 암살기도와 정순만

을사조약 반대투쟁이 뚜렷한 성과없이 끝나자 정순만은 ‘을사조약’ 암살을 기도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자료이다.

H. … 後德基·淳萬 募教友平安道壯士數十人 屢度欲誅朴齊純等諸人 而以日本兵防護之嚴密不果⁴³⁾

전덕기·정순만이 ‘教友平安道壯士’ 수십인을 모아 박제순 등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이 내용은 더 이상 구체적 상황을 밝혀내기 어렵다. 그리고 상동교회 담임자인 전덕기가 정말 이같은 계획에 가담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⁴⁴⁾ 하지만 정순만이 이 암살계획을 주도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⁴⁵⁾

앞서 나왔듯이 일제측은 정순만·이희간이 을사조약 체결 직전 박제

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3일 「義불怕사」;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9일 「警告耶蘇信徒」.

43) 정교, 『대한계년사(하)』, 191쪽.

44) 1907년 3월 독립관에서 전덕기는, 운전수의 기술이 좋지 못하면 자신과 승객이 모두 죽을 수 있으니 빨리 해고해야 하는데, 지금 기관수가 좋지 않아 생명을 잃을 지경에 놓였으니 즉시 그를 해고하고 선량한 기관수를 채용해야 한다는 요지로 연설했다(『황성신문』 1907년 3월 12일 「各會聯合演說」). 이는 1940년대 독일의 나치정권하에서 고백교회를 주도하다 “슬취한 운전사에게 운전을 맡김은 우리 모두의 죄악이다”는 신학적 입장에서 히틀러 암살계획에 가담한 독일의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 목사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그가 오적암살의 모의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45) 김상기, 「기산도의 의열투쟁」,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 4(백범학술원, 2006), 229쪽; 오영섭, 『한말 순국·의열투쟁: 한국독립운동의 역사(14)』(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44-146쪽.

한편 을사조약에 앞서 1905년 음력 9월 정순만과 이동녕이 ‘耶蘇教徒’ 기산도에게 이지용·이근택·이하영·박용화 등 ‘四奸’의 암살을 지시했으나(鄭淳萬·李石의 指揮를 受^ㅎ·야) 실패했다고 한다(「金錫桓·奇山度 외 判決宣告書(1906.5.13)」, 『남도문화연구』 11,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5, 221-222쪽).

순을 찾아가 협박했다고 봤으며, 서울지역 감리교 관리자 스크랜턴의 보고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I. 여기서 지난해 선교주관자(주: 스크랜턴)에 의해 엡윗청년회가 해산된 것을 보고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산조치는 이번 연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청년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 조직으로 변질했기 때문입니다. ... 소위 청년회원이라 하는 자들이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중 한 곳에 모여서는 정부관료들을 살해하는 일에 자기들을 돕지 않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위협했는데, 정부관료들이란 한·일간에 체결된 증오스런 조약 조인에 관련된 자들을 말합니다.⁴⁶⁾

요컨대 상동청년회 회원들이 정부관료들을 살해하려 계획했고, 이에 스크랜턴은 상동청년회를 비롯한 모든 엡윗청년회를 해산시켰다는 것이다. 회원들이 “정부관료들을 살해”하려 했다면 그 중심은 정순만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⁴⁷⁾

한편 상동청년회를 비롯한 전국 엡윗청년회가 해산된 이후 정순만의 국내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상동청년회란 근거지가 사

46) W. B. Scranton, 「Superintendent」, *Official Minutes of the Annual Session of the Korea Mission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6, pp.29-30.

47) 그렇다면 그가 을사조약 암살을 위해 “평안도 기독교인인 장사 수십명을 모집[募教友平安道壯士數十人]”했다는 『대한계년사』의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할까.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기독교인 수십명’을 ‘암살’에 동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면 이는 을사조약 반대투쟁에 참여했던 인물들 중 평안도 출신들이 많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대한문 앞에서의 복합상소에 참여한 인물은 김인준·신상민·이시영·전석준·최재학 등이었는데(『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29·30일 「諸氏發起對所謂新條約卜明書」), 이들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평양유생(송상도, 『기려수필』)·“평양교인(김윤식, 『속음청사』)”로 나온다. 이들 중 김인준·최재학이 평안도 출신으로 확인된다. 또 종로에서의 가두연설에 참여한 인물은 김하원·김홍직·이기범·차병수 등이었는데(김구, 『백범일지』), 이들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평안도교인(김윤식, 『속음청사』)”으로 나온다. 이들 중 김홍직·차병수가 평안도 출신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을사조약 반대투쟁에 참여한 인물들 중 평안도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암살단 역시 그랬을 것으로 본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91-92쪽).

라졌으므로 운신의 폭도 좁아졌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1906년 봄' 이상설·이동녕 등과 함께 국외로 망명했다고 한다.⁴⁸⁾ 하지만 『황성신문』(1906.5.24)에 그가 국민교육회 강습소에 보낸 '寄書'가 실린 것으로 미뤄, 좀더 국내에 머물지 않았나 짐작된다.

또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않지만, 상동청년회 해산 이후 정순만은 국민교육회를 통해 민족운동을 계속하려 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엽윗청년회의 해산 이전 서울의 대표적 청년단체는 황성기독교청년회를 제외하면 상동청년회·정동의법회·국민교육회 등이었으며, 이들은 각각 상동감리교회·정동감리교회·연동장로교회와 관련이 있었다.⁴⁹⁾

엽윗청년회인 상동청년회와 정동의법회가 해산되면서 황성기독교청년회를 제외한 서울의 청년회는 국민교육회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1900년대 정순만과 민족운동을 함께했던 이준·전덕기·서상팔 등이 국민교육회 회원이었다.⁵⁰⁾ 그리고 1906년 4월부터 이준이 그 회장을 맡았을 것이라는 추정⁵¹⁾이 맞다면 더욱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민교육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보다 국민교육이라는 계몽활동과 종교활동에 진력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²⁾ 정순만 역시 앞서 기고에서 보듯이 국민계몽을 중시했으며, 상동청년회의 해산 이후 상동청년학원에서도 여러 형태의 강습회를 열며 이에 주력했으나, 일제의 엄중한 감시·탄압 때문에 더 이상의 적극적인 항일투쟁은 한계에 부딪혔다. 더욱이 기산도의 의열투쟁에 관련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정순만은 국외망명을 선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망

48) “翌年丙午春 與李東寧·鄭淳萬等諸同志 潛離祖國 向滬轉海參威(宋相燾, 『騎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1971, 116쪽).”

49) 『제국신문』 1904년 10월 4일 「(논설)도훈 사업들의 성취함」; 『대한매일신보』 1905년 9월 5일 「會各有派」; 『대한매일신보』 1905년 10월 2일 「學員激昂」; 한규무, 「1900년대 서울지역 기독교회와 민족운동의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5-6쪽.

50) 최기영, 「국민교육회의 설립과 기독교」, 205쪽.

51) 최기영, 「국민교육회의 설립과 기독교」, 204쪽.

52) 최기영, 「국민교육회의 설립과 기독교」, 226쪽.

명 이후에도 그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으며,⁵³⁾ 헤이그특사 파견을 후원했다.⁵⁴⁾

V. 맺음말

이상에서 부족하게나마 상동청년회와 정순만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가 상동청년회에 입회한 시기는 1903-1904년으로 짐작되며, 회장 전덕기와 함께 상동청년회의 서기로서 멕시코교포 시찰조사단 파견, 을사조약 반대투쟁, 을사오적 암살기도 등 민족운동을 주도했다.

상동청년회는 일제측이 「조선독립운동의 근원」이란 보고의 목차를 '독립협회→상동청년회→망명자들의 해외독립운동'으로 잡았으며, 1907년 결성된 신민회의 '모체'라 불릴 정도로 민족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⁵⁵⁾ 그리고 상동청년회에 대한 각종 자료에서 전덕기와 함께 가장 자주 나오는 인물이 정순만이다. 즉 그는 전덕기와 함께 1904-1905년 상동청년회의 민족운동을 추진한 '쌍두마차'였다. 특히 그는 상동청년회 서기로서 언론을 통해 상동청년회의 활동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그 동안 박결순·신세라 등의 연구를 통해 정순만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많은 부분이 알려졌지만, 아직 드러나지 못한 부분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연구는 정순만 개인뿐 아니라 1900년대 민족운동을 새롭게 밝혀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53) “李喜侃氏 五十錢 李恒植氏 二十錢 鄭淳萬氏 二十錢 俞鎮泰氏 一圓을 國債報償聯合會議所紙筆費로 特捐(『황성신문』 1907년 5월 25일 「四氏特捐」).”

54)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98-99쪽; 신세라, 「정순만의 생애와 민족운동」, 245쪽.

55)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을유문화사, 1985), 18-19쪽 및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일지사, 1990), 180-182쪽.

[논문접수:2011.11.3, 심사시작:2012.1.15, 심사완료:2012.1.18]

주제어 : 정순만, 상동청년회, 전덕기, 독립협회, 멕시코교포 실태
조사, 을사조약 반대투쟁, 을사오적 암살기도

<참 고 문 헌 >

○ 자료

-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大同公報』, 『대한크리스도인회보』, 『신학월보』.
- Official Minutes of the Annual Session of the Korea Mission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5-1906.
- 『萬國耶穌青年會』, 『顧問警察小誌』(韓國內部警務局, 1910).
- 노블부인, 『승리의 생활』(기독교창문사, 1927).
- 서정주, 『이승만박사전』(삼팔사, 1949).
- 金允植, 『續陰晴史』(국사편찬위원회, 1960).
- 鄭喬, 『大韓季年史(下)』(국사편찬위원회, 1971).
- 宋相燾, 『騎驢隨筆』(국사편찬위원회, 1971).
- 『朝鮮獨立運動の根源』, 『齋藤實文書(9)』(고려서림 영인본, 1990).
- 『駐韓日本公使館記錄(24)』(국사편찬위원회, 1998).
-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돌베개, 2002).

○ 논저

- 송길섭, 『상동교회 90년사』(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1980).
-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을유문화사, 1985).
- 한규무, 『정순만론』, 『한국기독교사연구』 22(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8).
-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일지사, 1990).
-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1897-1914』, 『역사학보』 126(역사학회, 1990).
- 조이제, 『한국감리교청년회 100년사』(감리교청년회 100주년기념사업회, 1997).
- 최기영, 『국민교육회의 설립과 기독교』,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일조각, 1997).
- 한규무, 『1900년대 서울지역 기독교회와 민족운동의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 이덕주, 『전덕기 목사의 생애 재구성』, 『윤춘병감독팔순·성역40주년기념 논총: 한국감리교회와 역사』(논총간행위원회, 1998).
- 신세라, 『정순만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5(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 김상기, 『기산도의 의열투쟁』, 『백범과 민족운동 연구』 4(백범학술원, 2006).
- 오영섭, 『한말 순국·의열투쟁: 한국독립운동의 역사(14)』(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박결순, 『연해주 한인사회의 갈등과 정순만의 피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